

이재용 회장 2번 연속 中소 행보... '동행' 철학 뒤흔길래



취임 첫 행보로 광주 삼성 협력 현장을 찾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지난 10월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장록동 디케이 협력업체에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두 번의 공개 행보 모두 지역 중소기업에 찾아 눈길을 끈다. '이재용표 뉴삼성'의 기치로 사회와의 '동행'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일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 '동아플레이팅'을 방문했다. 회장 취임 이후 첫 공개 현장 행보로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협력회사 '디케이'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 기업도 삼성전자가 아닌 외부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미래동행'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은 이에 기반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

광주 삼성 협력회사 이어 부산 중소기업 현장 방문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세계 최고 향한 길"

로 기존 CSR(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검토해 전면 재정비했다.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비전 하에 ▲청소년교육 ▲상생협력 등 두 가지 CSR 테마를 선정했다. 미래동행 CSR은 사업보국을 잇는 것으로, 사업보국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미래동행 CSR은 청년실업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철학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에게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고, 활력을 잃은 시장에서는 기업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며 "진정성을 갖고 끈기 있게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 회장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CSR은 삼성 경영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전언이다. 미래동행 CSR은 ▲삼성 전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대표 CSR 프로그램 공동 운영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 NGO·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은 각 계열사별로 다수의 CSR 프로그램

을 분산·중복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대표 CSR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했다. 에켄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운영했던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는 5개 전자 계열사와 에스원이 함께 참여하며, '희망디딤돌' 사업은 삼성 23개 계열사가 진행한다. CSR 운영 체계는 '회사 주도형'에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임직원들이 사내 'CSR 포털'에서 자신이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삼성 대표 CSR 프로그램을 선택해 기부하면, 회사는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의 '1:1 매칭금'을 해당 CSR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임직원들의 기부금에 대해 회사가 사용처를 정해 집행하던 기존 기부 방식에 비해 직원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삼성은 임직원과 NGO 등 외부의 피드백을 CSR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반영해 프로그램의 성과, 기부금 활용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임형택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가운데)가 9일 목포 시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남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여성 행복시대!' 비전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생활개선회원들 '대도약 전남농업' 미래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

목포서 화합·우애 다져... '사랑의 쌀' 나눔도 전남농촌 지킴이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대도약 전남농업'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전남도는 9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남농촌 여성이 있다! 미래농업 여성이 있다!'를 주제로 2022 전남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자복 목포시의회 의장, 도의원, 생활개선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대회는 식전행사, 우수회원 표창, 퍼포먼스, 사랑의 쌀 전달식 등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는 뜻 깊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상식 순서에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우수회원 27명에게 대해 도지사상을 비롯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상, 한국생활개선전남연합회장상 등을 수여했다. 이날 전남 22개 시·군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실시할 모은 쌀을 목포시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0-2022년까지 3년간 이뤄진 각 시·군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사진 전시·홍보를 통해 선농업·농촌의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혁신으로 지방화 시대를 준비하고, 여성이 주도하는 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결의도 다졌다. 박영희 전남도 연합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단합하고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생활개선회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대도약 전남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개선회는 어려운 시절 앞장서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연대 정신으로 농촌지역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여성의 성세함과 창의성을 발휘해 전남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채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시 북구청 청년간부회 공무원,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

제 28기 18명 회원 활동... "어려운 곳에 보탬 될 것"

광주시 북구청 청년간부회 공직자들이 지역 사회 소통과 연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 및 환경정리 활동에 나섰다. 북구청 청년간부회는 1996년 시작되어 현재 28기 1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정 발

전과제 연구, 사회공헌활동, 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역동성을 도모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복지관 식당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안부와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함께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훈훈한 정도 나눴다. 이어서 조용훈 청년간부회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어려운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봉사활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서부도매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내일부터 20일까지 구매금액 30% 1인당 최대 2만 원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김장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물 주관으로, 참조기·막갈치·꽃게·굴 등 국내산 제철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최대 2만 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5000원 단위로 이뤄지며, 1만7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5만1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해준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함께 도매시장 수산물동 2층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1억4000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한다.

이슬비기자

Table containing detailed job recruitment information including: 1) Recruitment positions, 2) Recruitment locations and times, 3) Detailed job descriptions for various roles like clerical staff and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4)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